

‘동학개미’에도 증권사 실적 악화... 6개사 ‘적자 전환’

주요 증권사 1분기 실적

한국투자증권 1339억 순손실
헤지비용 높은 삼성증권도 부진
대신·미래에셋대우·메리츠증권 등
헤지비용 축소로 수익성 견조

올 초부터 ‘동학개미운동’이 활발하지만 증권사의 실적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1분기 브로커리지(위탁매매)가 급증했지만 증권사의 실적은 크게 줄었다. 투자은행(IB) 부문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데다 추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 운용손실이 실적부진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1분기 적자전환한 증권사도 6곳이나 나왔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적자전환을 공시한 증권사는 6곳으로 집계됐다. 한국투자증권, KB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KTB투자증권, SK증권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그동안 ‘사상 최대 실적’ 달리를 이어온 증권사여서 시장의 충격은 더 컸다. 공시 발표 전부터 시장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적자전

<주요 증권사 1분기 순이익>

증권사	자기자본	순이익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미래에셋대우	86981	1071	-36.30%
NH투자증권	52866	310	-81.90%
한국투자증권	52568	-1339	적자전환
삼성증권	48649	154	-86.90%
KB증권	46965	-208	적자전환
신한금융투자	42121	467	-34.10%
메리츠증권	39843	1023	-27.60%
하나금융투자	34830	467	-25.00%
키움증권	20338	67	-95.80%
대신증권	18007	471	4.20%

*자기자본은 2019년 말 기준

(단위 : 억원) /금융감독원

환에 대한 우려가 나왔지만 1339억원의 순손실을 낸 것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이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세계 주요 증시 하락으로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발생했다”며 “별도 기준 분기 순손실은 ELS, 파생결합증권(DLS) 등 금융 파생상품의 평가손실 등으로 561억원에 달했고, 해외 주요 증시 하락으로 해외 펀드도 평가 손실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1분기 증권사 실적은 ELS 관련 손실 영향이 컸다. 자체 헤지를 하는 증권사의 경우 세계 주요 지수가 급락하며 대규모의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체 헤지 비중이 높은 삼성증권 역시 실적이 크게 줄었다. 1분기 순이익은 15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7%나 하락했다. 1분기 ‘동학개미’ 열풍으로 주식계좌 개설이 급증하면서 수수료수입이 716억원 증가했지만 금융자산 손실 폭을 상쇄하지 못했다.

반면 최근 몇 년 동안 자체 헤지 비중을 낮춘 대신증권은 금융자산 손실 폭을 줄여 오히려 전년보다 성장한 실적을 내놨다. 1분기 순이익은 471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4.20% 증가했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자기자본 규모에 비해 자체 헤지 비율을 낮게 가져간 것

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분기 순이익은 107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6.3% 줄어드는데 그쳤다.

메리츠증권은 올 1분기 순이익 102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27.6% 감소한 수준이지만 미래에셋대우 다음으로 1분기에 많은 돈을 벌었다. 자기자본과 비교하면 메리츠증권의 수익성은 견조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분기 증권사 IB영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 속에서도 메리츠증권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내실있는 IB를 해왔다는 방증”이라면서 “메리츠증권을 비롯해 모든 증권사가 내부에서 IB 사업의 옥석을 고르는 작업이 진행됐는데, 지난해 이연된 IB 실적과 1분기에 이뤄진 IB 거래 등을 통해 수익을 상당부분 방어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키움증권의 실적도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동학개미군단이 가장 많이 몰려든 증권사가 키움증권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1분기 키움증권 신규계좌 개설수는 전년 동기보다 395% 폭증했지만 1분기 순이익은 오히려 95.78% 감소한 66억원을 기록했다.

키움증권 실적 감소의 원인은 자기자

본투자(PI) 적자전환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PI 부문에서 적자가 나며 전체 실적 부진을 견인했다”면서 “이달 들어 PI 부문은 적자를 회복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년 대비 실적 성장을 견인하기도 했다. 중소형 증권사만의 작지만 알짜인 IB딜을 무리없이 소화한데다 실적을 흔들만한 큰 위기도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차증권은 올 1분기 순이익은 24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 20.7%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1분기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한 것이다. 현대차증권은 “전 사업부문의 견조한 수익창출이 눈에 띄는 가운데 리테일과 채권사업 부문의 약진이 1분기 호실적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유진투자증권도 1분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28.4% 증가한 17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주식 거래 활성화에 따라 수수료 수익이 증가했고 채권 분야 전반에 걸쳐 좋은 실적을 달성했다”면서 “IB 분야 등에서도 고른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손범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중고차 금융 집중’ KB캐피탈, 1분기 호실적

순이익 393억... 전년비 21% ↑
중고차 할부 등 플랫폼 다변화
해외 수출판매도 꾸준한 성장



KB캐피탈이 중고차 금융부문에 공격적인 사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 TV 광고 등 적극적인 마케팅과 신차 할부채권을 유통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등 중고차 금융부문을 집중 공략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자회사로 둔 해외 수출판매사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의 호실적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 분석이다.

17일 KB금융그룹의 1분기 실적 공시에 따르면 KB캐피탈은 39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1.3%나 증가했다. 이번 실적의 가장 큰 영향을 준 사업부문은 중고차 할부 금융이다. 이에 따라 KB캐피탈도 중고차 금융 사업에 다양한 투자를 단행하

올해 1월에는 KB차차차를 3.0버전으로 개편하면서 영업을 확대하기도 했다. 이번 버전에는 인공지능이 탑재되면서 고객이 보유한 차량의 2년 뒤 시세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또 KB금융그룹의 KB차 이지(Easy) 통합한도조회 서비스도 신설, 자동차 금융 한도와 금리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향후에는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추진해 영업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외 수출 판매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KB캐피탈은 지난 2017년 KB국민카드와 합작해 라오스에 KB코라오리싱을 출범, 해외에 자동차 금융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설립 첫 해 1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기준 총 42억원의 순이익을 남기는 등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는 평가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고 있다.

우선 KB캐피탈은 중고차 플랫폼 ‘KB차차차’의 새 모델로 배우 이병헌을 발탁하고 새 TV광고를 선보였다. 광고에서는 중고차 등록 매물 대수가 가장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고차 금융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여 고객을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KB차차차는 올해 12만대가 넘는 자동차 매물이 등록되는 등 꾸준하게 매물량이 증가하며 업계에서도 1위를 굳히고 있다.

국내 주식형펀드 0.23% 소폭 반등

주간펀드동향

해외 주식형펀드는 0.93% 올라
베트남 5.18% 인도 1.82% 강세

국내 주식형펀드는 국내 증시가 등락을 거듭, 보험세를 기록하면서 소폭 상승했다. 해외주식형펀드 가운데 베트남 증시는 크게 반등했다.

17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5월8일~14일) 국내 주식형펀드는 0.23% 올랐다. 액티브섹터주식펀드가 3.72%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반등했지만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4620억원 줄어 들면서 전체 순자산은 4711억원 감소했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한 주간 0.93% 올랐다. 지역별로는 베트남(5.18%), 인도(1.82%) 등 신흥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고, 섹터별로는 경기관련소비재섹터가

2.19%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순자산은 2656억원 늘었다. 증시 반등에 베트남주식형펀드 순자산이 838억원 증가했고, 중국주식 순자산도 594억원 늘었다. 에너지섹터펀드는 하락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은 171억원 증가했다.

해당기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국내 주식형펀드(액티브형)는 헬스케어 섹터에 투자하는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자]1(주식)C-F’(6.46%)가 수위를 차지했다. 해외주식형에서는 베트남에 투자하는 ‘유리베트남알파[자]UH(주식)-C/A’가 5.65%로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손범지 기자

<유형별 혐의통보 실적>

혐의유형	2017		2018		2019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부정거래	16	13.7%	19	16.1%	28	23.3%
시세조종	30	25.6%	22	18.6%	20	16.7%
미공개정보이용	61	52.1%	67	56.8%	57	47.5%
보고의무위반	5	4.3%	6	5.1%	3	2.5%
기타*	5	4.3%	4	3.4%	12	10.0%
총계	117	100%	118	100%	120	100%

*기장질서 교란행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위반

불공정거래 지능화... 미공개정보이용 절반

거래소, 불공정거래 120건 통보
내부자 연루 혐의 적발 75% 달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혐의가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공개정보이용은 물론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7일 2019년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2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2017년 117건, 지난해 118건으로 혐의통보 건수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개정보이용이 57건(47.5%)으로 절반에 달했다. 부정거래(23.3%), 시세조종(16.7%), 기타(10.0%), 보고의무위반(2.5%)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거래는 2017년 16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19건(16.1%)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28건(23.3%)으로 크게 증가했다.

혐의유형의 측면에서는 부정거래 혐의가 전년 대비 47.4% 늘어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조종은 9.1% 늘었다. 반면 미공개정보이용행위 혐의사건은 14.9% 감소했다.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다수 혐의가 중복된 복합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은 2018년 53건에서 2018년 60건으로 증가해 전년

대비 13.2% 늘어났다.

내부자 관련 혐의사건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통보사건 103건 중 상장법인의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주요 혐의자로 적발된 사건은 총 77건(75%). 2017년 46건, 2018년 73건에서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모든 부정거래 사건(28건)의 경우 장법인 최대주주 등 내부자(25건) 또는 자금조달 계약 참여자 등의 준내부자(3건)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5.5%포인트 증가해 연이은 오름세를 보였다.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혐의가 집중됐다. 코스닥에서만 92건(76.7%)이 적발됐다. 코스피 시장(13.3%)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지배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이 코스닥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가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거래소는 향후 심리 업무 추진 방향에 관해 기업사냥형 정보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수반한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심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관련 테마주, 언론보도·검찰의뢰 중대사건 등 이슈사건에 대해 적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송태하 기자 atin@